

체험객 안전관리부터 소방안전인형극까지

전북119안전체험관 퇴직소방공무원 '학교안전지도관' 활동... 체험관에 활력

전북119안전체험관은 올해로 3년째, 퇴직 소방공무원을 '학교안전지도관'으로 선발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지도관'은 인사혁신처 노하우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 채용을 진행하여 올해 총 26명을 채용, 전북119안전체험관 등 전국 7개 안전체험관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119안전체험관은 올해 5명을 선발하여 체험객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인형극 공연 등 적재적소에 '학교안전지도관'을 배치, 체험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119안전심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안전지도관'이 현장학습에 동행, 여행지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 등 긴급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안전지도관'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 관련 사회공헌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북119안전체험관은 올해로 3년째, 퇴직 소방공무원을 '학교안전지도관'으로 선발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지도관' 정군대(64)씨는 소방안전인형극 전 마술공연으로 체험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는데, 그는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살린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 체험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119안전체험관 소재실 관장은 "퇴직소방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보다는 많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전북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지속 교류로 함께 잘 사는 도·농 만드어요'

정읍 입암면-서울 마포 아현동 주민자치위, 자매결연 협약

입암면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입암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입암면의 이동진 주민자치위원장과 김영환 면장을 비롯해 아현동의 이성환 주민자치위원장과 박윤희 아현동장,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지역 내 딸기 생산 농가와 대흥리 직물 단지의 명성을 이어가는 직물 공장,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보천교 중앙본소, 농산물 가공·판매로 귀농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농가 등을 견학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관에서의 주도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이러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생활과 밀착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특산물을 전시,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아현동 주민들은 믿음직한 품질의 농산물을 유통과정을 줄이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입암면 주민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나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입암면과 아현동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차이점 외에도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입암면과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약하는 젊은 도시 아현동으로서 상반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로 상호 보완해가며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면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입암면과 아현동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상생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교류를 이어가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약식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양쪽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신 주민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산학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간호학부에서는 최근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비전대 간호학부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업무를 이론과 연계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지역사회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전주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직업병 상담, 최소한의 공공 기초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군산경찰 청렴동아리 아리울 푸르미, 어버이날 맞아 배식 봉사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아리울 푸르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7일 안상엽 서장을 비롯한 군산경찰서 직원들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산북동 소재 '사랑의 밥상 나눔터'에서 미리 준비한 식사를 어르신 200여 명에게 직접 배식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직원들은 급식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적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범죄피해자나 내서를 배우하면서 범죄피해 예방 홍보 및 인권 보호활동을 병행했다.

안상엽 서장은 "군산경찰은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언제라도 달려가 사랑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비전대 미용과, 코스튬플레이 한지패션쇼 참가

전주비전대 미용과 2019 코스튬플레이 한지패션쇼 참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2019 코스튬플레이 한지패션쇼에 미용건과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코스튬플레이는 참가자들이 영화 및 게임 주인공들의 옷을 만들어 진행하는 패션쇼로 이번 행사에는 전국 7대학 8개팀이 72개 작품 한지 코스튬플레이 선보였다.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과 2학년 24명으로 구성된 '패러디(ACTOR)' 팀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한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코스튬플레이 의상과 화려한 특수분장으로 캐릭터를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은상, 동상, 특선 등 12개 상을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경찰, 유치원 방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 점검

고창경찰서(총경 박정환)는 7일 경찰, 군청이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방문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 유무를 집중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4.17)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를 부과해 사라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됐다.

고창경찰서에서는 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어린이 안전활동을 병행해 현장 점검 및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정읍시립요양병원 '은혜나눔 어버이날 행사'

정읍시보건소가 주관하고 정읍시립요양병원이 주최한 어버이날 기념행사인 '은혜나눔 어버이날 행사'가 최근 정읍시립요양병원 주차장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내 입원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치매환자 가족 간의 정보교환과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켜 마음을 소통하고 간병으로 인한 피로도를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정읍연지농악단의 식전행사를 비롯해 소리사랑밴드와 동초소리아파트의 공연, 어버이 은혜 헌곡,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다양하고 뜻깊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정읍시 보건소장은 "치매 특성상 치매는 환자와 밀착해 돌보는 시간이 길어 보호자의 신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스림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상용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을 잘 이해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치매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양 부담도 완화해, 보다 건강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김재곤 교수, 구강보건 향상 기여

전북대학교는 김재곤 교수(치과대학)가 치과의사로서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본보 5월 7일자 14면)

지나해부터 대한소아치과학회 제21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활발한 임상연구와 진료활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5년부터 전북대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 교수는 교육자로서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전북대 병원 소아치과에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진료를 수행해 왔다.

한편, 김재곤 교수는 전북대 치과병원 진료처장, 대한소아치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대병원 소아치과장, 대한소아치과학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우체국-연합장문외과 '이주여성 고향집 사랑보내기'

남원우체국(국장 유기권)은 남원연합장문외과(원장 정우진·사진)의 협조를 받아 '결혼 이주여성 고향집 사랑보내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고국에 EMS(국제특급우편)를 보낼 경우 생필품 등 선물과 EMS 발송비용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남원연합장문외과에서 300만원 상당을 협찬했다.

이에 대해남원연합장문외과 정우진 원장은 "비용 부담이 커서 고향에 선물보내기가 쉽지 않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기권 남원우체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면 한다며, 우체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전북검사국-NH 장수지부, 농촌일손돕기

농협 전북검사국(국장 김성수),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태호)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장수농협 직원 20여명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로 구슬 땀을 흘렸다.

이날 직원들은 장수군 노곡리 사과재배농가에서 사과꽃따기 및 마을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농가는 농번기에 사과 꽃따기작업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손을 도와준 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경찰, 범죄피해자 후원금 지원 업무협약

남원경찰서는 7일 경찰발전위원회와 범죄피해자 후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조기 피해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매년 100만원 기부금 후원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에 각 조기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다.

배석기 위원장은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매년 일정에 후원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홍범 서장은 "범죄 피해자가 제도의 사각지대 놓여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협력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세밀한 보호와 지원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